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2. 10. 18.(화) 11:00 < 10.19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18.(화)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 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 명지혜 (044-203-5225)

산업부, 제101차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 개최

-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 배럴당 89~98불 전망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창양 장관)는 **최근 국제 석유시장을 점검**하기 위해 10.18일(화) 석유공사 서울업무지원센터에서 **「제101차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」를 개최**하였다.

*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국내·외 석유시장의 변동성을 진단하기 위해 **'04년 시작**된 **민·관 협의체**로, **주제별 발제** 이후 **자유토론**을 통해 **석유시장 전망에 대해 논의**

○ 최근 배럴당 80불대까지 하락하였던 국제유가는 지난 **10.5일 OPEC+ 대규모 감산합의*** 이후 **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**되어 **90불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****하고 있다.

* 지난 10.5일 제33차 OPEC+회의 결과, 회원국들의 총 생산쿼터를 '22.11월~'23.12월간 기준생산량(4,385백만B/D) 대비 2백만B/D 감산하기로 결정

** 국제유가 추이(두바이유, $/B) : ('22.8월) 96.63 → (9.4주) 86.13 → (10.1주) 91.2 → (10.2주) 93.3

○ 이에, **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**로 에너지경제연구원, 석유공사, 아람코 코리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**국제 석유시장의 주요 시사점을 논의**하고, **향후 국제유가를 전망**하고자 금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.

【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개요 】

■ 일시 / 장소 : '22.10.18(화), 15:30 ~ 16:30 / 석유공사 서울업무지원센터

■ 참 석 : (정부)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, 석유산업과장
(전문가) 에너지경제연구원, 석유공사, 국제금융센터, 수출입은행, 아람코 코리아

■ 논의사항 : ①국내·외 석유시장 동향 및 '23년 국제유가 전망
②금리인상, 달러화 강세 등 금융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동향

□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**3분기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**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**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** 등 **금융요인**에 더해, **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증가 모멘텀 약화** 등 **석유수요 감소**로 진단하였다.

○ 이어서, 최근까지 금융요인과 경기 및 수요측 요인이 유가 변동을 주도해왔던것과 달리,

○ 앞으로는 **OPEC+의 감산 합의**, **동절기 가스 대체수요 발생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등 공급측 요인**도 동시에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.

□ 에경연, 석유공사는 **하반기** 유가가 세계 경기둔화로 **상반기 대비 하락**하여 이번 4분기와 '23년 상반기까지의 국제유가(두바이유)를 **평균 $89~98/배럴로 전망**하였다.

* 수출입은행은 EIA(미국 에너지정보청)의 발표를 인용, 동기간 **WTI유는 $86~87/배럴**, **브렌트유는 $93/배럴**로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

□ 산업부 **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**은 "최근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**국제유가 상승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**하면서 **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**, **석유시장 점검회의** 등 가격안정화 노력을 지속하여 **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**해나갈 것"이라고 언급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